



아시아 시멘트시장의 현황 및 전망

최 인 화 <쌍용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아시아지역의 시멘트 수요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미 생산시설의 확장 및 신설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어 자칫 하면 공급과잉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Asiamoney誌 최근호에서는 아시아 시멘트산업의 현황과 향후전망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전체 개황과 함께 국별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다룬 同誌는 활발한 경제성장과 인프라지출의 규모증가로 98년까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시멘트수요가 90년 대비 16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시멘트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설 확장계획을 추진중이지만 향후 2년동안은 시멘트의 부족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공급과잉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만도 7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96년말에서 98년초 사이에 가동에 들어가는 등 생산시설 확장계획이 지나치게 불붙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96년에는 대부분의 아시아 시멘트업체들이 운영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시멘트업체들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멘트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속에 아시아의 주요 국별 시멘트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태 국

태국의 4개 시멘트업체는 자국의 인프라 개발계획의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생산능력의 확충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가장 큰 시멘트업체인 Siam Cement(SCC)는 96년 4/4분기중 가동에 들어갈 2개의 공장을 더하여 연산능력을 현재의 1,620만톤에서 2,040만톤으로 늘리게 된다.

1913년에 설립된 SCC는 철강, 전자재,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및 타이어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는 태국의 가장 큰 재벌그룹이기도 하다.

95년 시멘트와 레미콘의 수익이 그룹 전체 연결수익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 시멘트사업의 성장은 생산이 이미 풀가동상태이기 때문에 약 5% 정도로 추진되는 가격 인상분에 그칠 전망이다. 태국에서 2번째로 큰 시멘트업체인 Siam City Cement(SCCC) 또한 95년의 생산능력 840만톤을 96년에 1,230만톤으로 늘린다. 69년에 설립된



SCCC는 Ayudhya은행과 Karat Sanitaryware를 소유하고 있는 Ratanarak家の 그룹기업중 하나이다. 이 회사의 강점은 태국 북동부인 그룹의 본거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同社は 일련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비절감으로 생산원가가 낮은 점을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석유, 천연가스, 갈탄 間에 연료대체가 가능한 The flick-of-the-switch technology를 처음으로 내놓았다. 시멘트와 레미콘이 SCCC의 95년도 연결매출의 75%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75%는 국내대리점을 통한 판매였고, 나머지는 건설업체에게 직판하였다.

95년에 약 200만톤을 수출한 SCCC는 96년에는 100만톤 미만을 수출할 예정이다. SCCC는 8개의 자회사와 2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중 4개사는 레미콘, 콘크리트 블록, 위생도기, 세라믹 타일 등 건자재 생산업체이다. 태국 시멘트 시장에서 다음으로 큰 업체인 TPI Polene은 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87년에 Thai Petrochemical Industry가 SCCC의 저농도 폴리에틸렌 생산부문을 인수받아 설립한 TPI Polene은 2개의 시멘트 공장을 운영중이며 3번째 공장이 96년 3/4분기에 가동할 예정으로 현재의 연산능력 550만톤은 900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95년도 시멘트 및 레미콘이 그룹 매출의 67%를 차지했다. 비상장회사인 Asia Cement도 생산능력을 300만톤 늘릴 예정이다.

2. 필리핀

필리핀에는 19개의 시멘트업체가 있다. 그 가운데 11개는 Luzon에, 3개는 Visayas에, 5개가 Mindanao에 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재벌그룹의 하나인 Phinma 그룹이 약 50%의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를 점유하고 있는 Araneta그룹과 Alcantare 그룹이 있으며 그의 Bacnotan Cement, Central Cement, Rizal Cement, Davao Union Cement, Solid Cement, Hi Cement가 있다.

북부 Luzon에서 가장 큰 시멘트업체인 Bacnotan Cement는 생산능력이 2,800만 bags(@ 40kg)이며, 3기의 습식라인 외에 효율성이 높은 건식라인도 1기를 보유하고 있다.

The Visayas와 Mindanao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Davao Union은 35억 페소(미화 1억3천4백만 달러) 상당의 확장계획을 진행중이며 이것이 완공되는 97년 초에는 연산능력이 현재의 2,250만 bags에서 5,000만 bags으로 늘어난다.

Bulacan의 Luzon province 중부에 위치한 Hi Cement도 최근 5년동안 3번째인 증설을 추진중인데, 이것이 97년 7월에 완성되면 시멘트 총생산량이 현재의 일산 3,456톤에서 11,616톤으로 늘어나고 클링커 생산능력도 일산 2,700톤에서 7,700톤으로 늘어나 필리핀에서 가장 큰 시멘트제조업체가 된다.

Hi Cement는 최근 확장자금의 조달을 위해 96년 6월 공모를 통해 총 33억 페소(미화 1억2천6백만 달러)를 확보했다.

64년에 House of Investment에 의해 설립된 Hi Cement는 83년 10월 시멘트 공급과잉과 과도한 채무 때문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84년 3월, Phinma가 설립한 Atlas Cement Corp가 Hi Cement의 지분 85%를 매입하여 경영권과 채무잔액을 인수했다. 95년에 Hi Cement는 국내 시멘트생산의 9.1%, 국내 판매의 8.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Manila 시장의 13%, Luzon 북부의 24%, Luzon 중부의 13%, Calabarzon지역을 포함한 Luzon 남부의 20%를 점했다.

Araneta 그룹은 96년 하반기까지 FR Cement의 생산능력을 약2,500만 bags으로 늘리기 위해 12억페소를 투자한다. FR Cement는 60년대부터 운영돼 왔고, 확장된 생산능력 기준으로 약 80년간 캐낼 수 있는 석회석 채석장을 Rizal의 Teresa에 갖고 있다.

Alcantara그룹에 속하는 Alsons Cement는 Mindanao 북부의 Iligan과 Lugait 두 곳에 연산능력이 총140만톤인 시멘트공장을 갖고 있다. 동사는 시멘트제조에서부터 운송, 그리고 시멘트 및 기타 전자재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 확장계획은 특히 Manila에서 급증하고 있는 건설계획에 따른 것이다. 미화 약1백30억 달러가 96년부터 98년까지 경철도 계획 III, Manila스카이웨이, 그리고 Luzon 남북부 고속도로의 재개발 등의 정부 인프라계획 자금으로 배정되어 있다.

시멘트는 주택건설로부터의 막대한 수요 외에도 Fort Bonifacio, Filinvest Corporate City, Rockwell in Makati 등의 신상업지구 개발로부터의 수요가 높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을 위한 거래협회인 The Philippine Cement Corp는 시멘트 수요는 향후 4년간 연 1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인도

인도 최대 시멘트 제조업체인 Associated Cement Companies의 연산능력은 96년 3월말 현재 960만톤으로, 순매출액은 전년보다 13.4% 증가한 2백34억3천만 루피(미화 6억5천9백44만 달러)인데, 순이익은 전년보다 57.1%가 증가한 22억7천만 루피를 기록했다. 순이익 급증은 95-96회계년도 하반기 중부지역의 부족현상에 기인한 가격인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석탄, 석유, 전

력 등 투입원가의 상승과 가격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

인도에서 두번째로 큰 시멘트업체는 96년 3월 현재 연산능력이 620만톤인 L&T이고, 그 뒤를 470만톤의 Century Cement, 400만톤인 Grasim Cement, 350만톤인 Birla Jule 등이 잇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시멘트업체인 Gujarat Ambuja Cements는 96년 3월 말 현재 연산능력이 340만톤인데, 64억 5천만 루피의 매출액에, 16억2천만 루피의 순익을 공표하였다. 이런 대단한 성과는 이 나라 북부에 있는 신공장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시멘트 수요는 예산집행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출에 힘입어 매년 1~4월에 피크를 보인다. 그러나 금년 4월에는 대형공장의 시멘트 총출하량이 3월의 610만톤, 2월의 550만톤보다 적은 540만톤으로 떨어져 현저한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몬순계절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전국에 걸쳐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주요 도시에서의 5월 가격은 Bombay에서 대(袋)당 154~169 루피, Madras에서 143~157루피, New Delhi에서 142~145 루피 등이다.

4. 말레이시아

Kedah Cement Holding(KCH)은 말레이시아에서 최대의 시멘트업체로 연산능력이 시멘트 380만톤, 클링커 330만톤이며, Hicom, the Kedah 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 Temasek, Malaysia Kuwaiti Investment 와 민간투자자 그룹의 합작법인으로 80년도에 설립되었다. 동사는 1982년에 건설되어 1984년에 가동



개시한 Langkawi 소재의 일괄공장을 갖고 있으며, 이 공장의 연산능력은 클링커 120만톤, 분쇄능력 70만톤이다. 1989년에 KCH는 기존 킬른의 처리능력을 150만톤으로 향상시켰고 90만톤의 분쇄시설을 신설했다. 1991년 이후 동사는 클링커 생산능력 연50만톤과 Batu Caves의 20만톤을 포함한 200만톤의 분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KCH는 매장량이 향후 100년 이상 되는 자사 소유의 채석장으로부터 값싼 석회석을 얻고 있다. 공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채석장은 독립된 계약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Cement Industries of Malaysia(CIMA)는 75년 8월에 수입 클링커를 사용한 시멘트생산을 시작했으나, 77년부터는 시멘트 일괄생산에 돌입했다. 92년에 CIMA는 제1공장의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2억 달러(미화 8천만 달러)를 투자, 지금은 연150만톤의 생산능력과 180만톤의 분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CIMA는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Renong그룹의 일부로서 6억1천7백20만 달러가 소요되는 연산 규모 120만톤의 일괄공장을 짓고 있는 Negri Sembilan Cement Industries의 지분 35%를 매입했다. CIMA는 또한 6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Cimaco Quarry를 통해 매장량이 약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석회석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다.

Associated Pan Malaysia Cement(APMC)는 말레이시아 제2의 시멘트업체로 Malayan Cement와 Pan Malaysia Cement Works(PMCW)의 50:50 합작법인이다. Kedah에 있는 설비가 완공되면 APMC는 연간 분쇄능력 330만톤, 클링커 생산능력 280만톤을 보유하게 된다. (1950년에 설립된 Malayan Cement는 처음에는 시멘트 제조업체로 시작하였으나 67년 PMCW와 생산라인을 합병시키면서 투자지주회사로 변신하

였다.) 또 APMC와 Etika Setia 사이의 합작법인의 일부인 Pasir Gudang공장이 완공되는 97년 4월이면 75만톤의 분쇄능력이 추가된다. APMC는 또한 Perak의 Kanthan에 연간 분쇄능력 130만톤, 클링커 생산능력 180만톤인 일괄공장을 97년 9월 완공 예정으로 개발중이다.

5. 인도네시아

Semen Gresik은 95년 Semen Padang과 Semen Tonasa를 매입함으로써 총생산능력을 연산 855만톤으로 늘려 인도네시아 최대 시멘트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 11월 완공 예정인 Sulawesi 남부의 신공장인 Tonasa IV로부터 230만톤이 더해지면 96년말까지 총1,085만톤의 능력을 갖게되어 인도네시아 전체 생산능력의 41%를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 230만톤씩인 3개의 공장신설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Tuban II 공장이 97년, Tuban III 공장과 Indarung V 공장이 98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Gresik은 95년말 현재 Java 동부 수요의 67%를, Pandang은 Sumatra수요의 54%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또다른 주요 시멘트 업체는 Indocement인데, 총생산능력이 96년말까지 연산 960만톤에 이를 것이다. 95년에 동사는 이 나라 총수요의 39%를 차지했다. 동사 매출의 약80%는 Jakarta교외에 위치한 현재 연산 830만톤인 Citeureup공장에서 이루어지며 98년초까지 250만톤의 생산능력을 증설할 예정이다. 또 1997년 중반까지 Java 서부와 중부사이에 위치한 Cirebon공장의 생산능력을 두배인 260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1997년 중반까지 Java서부와 중부사이에 위치한 Cirebon공장의 생산능력을 두배인 260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더욱이

Indocement는 일본의 마루베니, 한국의 코데코와 합작으로 Kalimantan남부에 미화 4억9천8백만 달러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은 연산능력 250만톤을 갖출 예정인데, 98년 중반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1998년이면 국내 시멘트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이공장의 생산품 일부는 수출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소비증가는 둔화되고 있어, 수급상황이 1995년에 이미 균형이 잡혔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시멘트협회는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96년에 290만톤의 수입계획을 갖고 있다.

Semen Cibinong은 인도네시아의 상장 시멘트 업체중 가장 작은 업체로 연산규모가 450만톤이다. 이 회사 또한 97년까지 Nusantara공장의 생산능력을 260만톤 늘리는 증설계획을 추진중이다. Cibinong의 95년 매출 증가분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레미콘 덕인데 전체 매출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6. 대만

Asia Cement가 생산능력 600만톤과 시장점유율 22%로 Taiwan Cement를 제치고 대만의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로 부상했으며 1995년 시멘트와 클링커의 판매량은 572만톤에 달했다. Asia Cement는 Hualien 공장에 170만톤짜리 킬른을 증설할 계획이며 이는 동사가 업계 선두의 위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만에서는 시장점유율이 기본적으로 각사의 생산능력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과점구조가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Taiwan Cement는 1994년 9월 연산 190만톤인 Kaohsiung공장의 문을 닫은 후, 대만의 대형 시멘트업체 가운데 선두의 자리를 잃었다. 동사는 Hualien의 Hoping시멘트산업 지구에 3단계로

500억 달러(미화 19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단계에는 1998년 말까지 완공예정인 연산 25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제2단계로 1년 후에 400만톤을 증설하고, 제3단계에는 최종적으로 1,3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만 정부는 1997년까지 서해안에서의 석회석 채석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고, 시멘트업체의 이전지역으로 Hoping을 선정했다.

Lucky Cement는 95년에 200만톤을 판매하여 대만시멘트업체의 제3위 자리를 차지했다. 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공장이 동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이 회사는 채석권 만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 97년 이후 예상되는 시멘트 부족 시에 득을 보게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의 시멘트 수요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미 생산시설의 확장 및 신설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어 자칫하면 공급과잉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업체들이 이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크게 평가하여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공급상황을 파악해야 낭패를 맞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지역이 우리 나라에 비해 아직은 기술이나 자금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기술의 수출이나 설비의 수출은 물론 장려할만한 것이지만,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생산 체제를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멘트는 벌크화물이란 상품의 특성상 수송비가 많이 들어 교역상품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생산 규모는 현지에서 소화가능한 양만큼 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지하고 이 지역으로의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